

http://dx.doi.org/10.17703/JCCT.2022.8.1.277

JCCT 2022-1-31

## 「體育之研究」속 청년 모택동(毛澤東) 체육사상에 관하여

### A Study on the Sports Ideas of Mao Ze Dong, a young man in the "Ti-Yu zhi Yan-Jiu"

신의연\*

Shin eui-yun\*

**요약** 본 연구에서는 실제 청년 모택동(毛澤東)이 1917년 『新青年』 잡지에 직접 작성 투고한 「體育之研究」라는 문장을 직접 해석하고 분석하여, 이후 그의 이 체육에 대한 사유가 이후 그의 체육사상 형성과 현대 중국의 체육 발전에 미친 직간접적 영향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 연구 방법으로는 원문 「體育之研究」중 청년 모택동의 특이한 체육에 대한 생각이 담겨있는 서론과 본론 2조항과 6조항을 주로 인용 발췌하였다. 그는 이 문장에서 첫째, 그는 체육교육의 목적이 구국에 있음을 밝히고 당시 체육교육의 폐해를 일부 언급하며, 실질적인 체육교육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두 번째, 그는 심신일원론적인 체육사상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그의 체육사상에 따른 실천은 예외적으로 소박하고 실질적이었다. 대표적으로 「體育之研究」에서 제시하는 모택동이 고안한 6가지 체력운동 실천방법이 중요한 예시가 된다. 결론적으로 이 문장에서 모택동(毛澤東)은 체육을 통해 덕육과 지육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체육활동은 개인의 자아실현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모택동(毛澤東)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후 근 30년간 중국 최고 통치자로서 본인이 직접 ‘장강 수영’ 등 체육활동의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하였고, 중국 전역에 체육교육과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체육사상은 1960년대 이후 중국의 엘리트 체육이 급속히 성장하고 중국 전역에 사회체육의 기초가 다져지는 기반이 되었다.

**주요어** : 모택동, 「體育之研究」, 체육사상, 『新青年』, 현대중국, 심신일원론

**Abstract** In this study, some of the contents of the sentence " Ti-Yu zhi Yan-Jiu " written by young man Mao Ze Dong were directly interpreted and examined, and it was intended to summarize what the reasons for this sport, which influenced the formation of his sports thoughts in the future, had on sports development in modern China. As a research method, the original text "Ti-Yu zhi Yan-Jiu" contains young man Mao Ze Dong's unique thoughts on physical education some of the introductions and Articles 2 and 6 of the main text are mainly cited and excerpted. In conclusion, in this sentence, Mao Ze dong summarized that physical education is the way to overcome virtue and knowledge, and active physical education activities accelerate individual self-realization. First, he is a physical education in Salvation is the purpose of the evils of physical education at the time and that actual physical education must be a story, and make some comments. Second, identity theory, he suggested Mental and physical unity. Third, in accordance with the practice was unusually simple and practical, representatively, the six physical fitness practices suggested in "Ti-Yu zhi Yan-Jiu" are important examples.

**Key words** : Mao Ze Dong, "Ti-Yu zhi Yan-Jiu", Physical education, Modern China, Mental and physical unity

\*정회원, 한일장신대학교 운동처방재활학과, 조교수 (제1저자) Received: December 31, 2021 / Revised: January 5, 2022  
접수일: 2021년 12월 31일, 수정완료일: 2022년 1월 5일 Accepted: January 8, 2022  
게재확정일: 2022년 1월 8일 \*Corresponding Author: yilian@hanmail.net

Dept. of Exercise Rehabilitation, Hani Univ, Korea

## I. 서론

2021년 지금의 중국에서 모택동(毛澤東)(이하, 모택동이라 표기함)이라는 어휘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알리지 않게 언급될 수 있는 단어이다. 하지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후부터 1966년부터 10년 동안 이어진 문화대혁명에 이어 1990년대까지는 함부로 언급될 수 없는 신성한 어휘였다.

지금의 모택동은 현재 중국 국가 총서기인 시진핑(習近平)의 집권강화를 언급할 때 비유되는 전임 인물로 등장한다. 1911년 신해혁명이 역사적 미완성의 혁명으로 평가받고, 이어 장제스(蔣介石)가 1928년부터 1949년까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주석이자 지도자로서 내부의 부패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였고, 끝까지 항일운동을 이어나가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모택동은 1931년 이래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로서 끝까지 항일운동을 고수하였으며, 수적으로 열세였던 홍군을 이끌고 대장정을 통해 전 중국을 장악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다.

모택동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초대 국가주석 및 공산당 총서기가 된 이후부터 1958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의 대약진운동, 그리고 1960년대부터 10년간 이어진 문화대혁명, 그리고 1976년 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 중국의 초대 지도자로서의 공과(功過)의 평가가 엇갈린다. 하지만 중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과 공산당 선도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한 그의 사상과 리더쉽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런 모택동의 사상의 기원에 대하여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편향적인 시선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모택동의 사고가 철저히 유년시절과 청년시절의 개인의 체험과 인식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일부 중국 20세기 초반 청년의 역동적이며 신선한 사유를 담보하고 있다.

모택동의 여러 사유 중에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특이할 만한 것이 바로 그의 체육사상이다. 모택동은 그의 나이 24세에 당시 중국 신문화 운동의 정신적 본산지였던 청년잡지 『新青年』이라는 잡지에 「體育之研究」라는 문장을 발표하였다. 이 시기는 중국에서 공산당이 세워지는 1921년 이전으로, 모택동이 진독수(陳獨秀) 등을 만나 본격적인 사회진화론과 공산당 사상을

학습하기 이전이라 할 수 있다.

모택동은 1918년 6월 호남 성립 제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은사인 양창제(楊昌濟)가 북경대학 교수로 부임하자 그를 따라 북경에 되고, 북경대학 도서관에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 그후 양창제의 소개로, 진독수(陳獨秀)와 이대조(李大釗)를 만나게 된다(광령링, 2011. p12). 따라서 1917년도 그가 이 「體育之研究」라는 문장을 투고했을 때는 균형 잡힌 사회주의 사상이 성립하기 이전으로 중국 근대체육교육을 직접 받고 있는 청년에 불과하였다.

모택동은 1913년에 호남성립 제일학교에 입학하여 18세에 졸업하였으니 1917년은 졸업을 1년 남긴 시점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이 문장은 은사인 양창제의 도움으로 투고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있다. 이 「體育之研究」문장은 중국 근대체육의 폐단과 모택동이 생각하는 체육의 위치와 의의, 올바른 체육교육의 방법 등을 소신 있게 나열하였다. 하지만 이후 연결되는 텍스트와의 연결 없이 이 문장하나로 모택동의 체육사상을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體育之研究」속에서 모택동의 체육에 대한 사유, 당시 실제 체육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체육교육에 대한 비판적 태도, 그리고 체육의 본질을 간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택동은 이 문장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體·德·智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밝히고, 체육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근대 중국의 시작 이후 교육기관에서 실시된 어설픈 군국민주의 체육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모택동은 본문 제 3조항 ‘체육의 폐해와 우리의 나아갈 길前此體育之弊及吾人自處之道’에서 “亦惟是外面鋪張，不揣其本而齊其末 겉보기만 번지르르할 뿐, 그 근본을 따지지 않고 그 끝부분만 다듬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당시의 중국의 근대 체육교육이 형식만 있고 실질적이지 않아서 실제 학교체육교육에 실효가 없어 체육의 도움을 받는 학생이 매우 적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실제 청년 모택동이 직접 작성한 「體育之研究」라는 문장의 일부 내용을 직접 해석하고 고찰하여, 향후 그의 체육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 청년시절의 체육에 대한 사유가 현대 중국의 체육 발전에 미친 직간접적 영향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택동의 사상적 이데올로기를 따라가는 큰 연구가 아니라 실제 청년시절 그의 저술을 토대로

청년 모택동의 체육에 대한 진정성을 탐구해 보고자 하는 작은 연구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고에서는 「體育之研究」는 전체 문장이 아니라, 원문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 본론의 제2조항과 제6조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구로 제한되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이를 내용을 통해 본문에서는 청년 모택동 특유의 체육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다음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다.

## II. 모택동의 생애와 중국체육의 영향

### 1. 모택동의 생애

모택동의 사상은 현재까지도 부인할 수 없는 중국의 정치적 신념의 근간이 되어 현재까지도 여러 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이 체육활동의 확장과 발전에 긍정적 요인이기도 하지만, 건국초기에 모택동이 체육활동을 중시하여 국민들의 일반적인 삶에 미친 영향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이후, 국가체육행정기구인 ‘中華全國 體育總會’를 창립하고 ‘發展體育運動, 增強人民體育’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였다. 이는 인민 즉, 국민의 체력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상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현대 중국에서 모든 체육정책과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구호에 해당한다[1].

모택동은 1893년 호남성 상담현 소산(韶山)에서 태어났다. 모택동의 두 형은 병으로 사망하였고, 본인도 12세 때에 큰 병을 경험하였다. 그래서 소년 모택동은 꾸준한 단련을 통해 건강해지고자 결심하였다. 그는 마침 스승 양창제(楊昌齊)를 깊이 존경하며, 그를 따라 체육활동을 즐기며 몸과 마음을 동시에 수련하였다[2].

그와 동시에 그는 호남 성립 제일사범학교에서 근대 서구사상을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택동의 독서이력은 조금 특이하다. 일반적인 공맹에 대한 도덕공부가 아니라 『수호전』, 『삼국지』, 『서유기』처럼 혁명이나 모반, 병력을 동원하는 소설을 즐겨 읽었다.

그의 체력과 체육교육에 대한 생각과 실천은 호남 제일사범학교 재학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은사 양창제의 영향으로 수영, 체조, 냉수욕을 하게

되었다. 직접 친구에서 편지를 보내어 이로 인하여 허약했던 자신의 몸이 호전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또한 이때에 이 스승의 도움으로 진보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신문화운동에 마음으로 부터 동조하며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고 민주와 과학이 현대 중국에 필요함을 인지하였다. 이때에 체육의 가진 힘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모택동은 체육이 자아를 실현하는 길이자 성공의 지름길로 생각하게 된다[3].

모택동은 1915년 창간된 당시의 진보잡지인 『新青年』를 구독하며 중국 공산당을 창당한 진독수(陳獨秀)가 중국의 숭문주의를 비판한 글을 읽으며, 국민들의 건강과 국가의 체력과의 상관관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모택동이 살았던 長沙에는 유명한 변법운동과 중한 사람인 담사동(譚嗣同)이 1897년 時務學堂을 설립하고 體操課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서양체육인 병식체조를 도입하고 육상, 구기종목운동도 같이 교육하였다. 1905년 이 학당의 규정에는 아침체조가 있었고 중간체조도 있었다. 외국유학에서 돌아온 지식인들이 1911년 중국 호남성에 체육회를 조직하였다. 바로 이 조직들이 모택동의 체육사상계몽과 체육실천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택동은 1913년 호남성립 제일사범학교에 입학하였다. 여기서 새로운 사상을 접하였고, 향후 신문화운동의 역량이 되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서 나라를 위해서는 사회와 국민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바로 그의 체육사상이 형성 정착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3].

이후 모택동 자신도 1917년에 『新青年』에 「體育之研究」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체육에 관한 문장으로 매우 이례적인 주제였다. 체육에 관한 내용이 흔하지는 않았지만, 후에 중국 공산당 창립자인 진독수(陳獨秀)는 1915년 제 1권 1호부터 중국 청년의 반 이상이 노인과 같은 신체를 가지고 있다(新青年, 1915, 제 1권 제1회, p.2.)며, 중국청년의 신체적 허약을 지적하였다. 이에 모택동이 문장에서 주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체육교육이 시행되며, 실용적인 체력단련으로 강건한 중국을 건설하자는 내용은 전체적인 『新青年』이 지향하는 바와 같았다[2].

이외에도 모택동은 중국번, 양계초 같은 당시 개혁인사들의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논한 문장을 읽으면서 스스로

중국에 체육교육이 필요함을 인지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택동 자신도 체력단련을 게을리하지 않던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모택동은 호남 성립 제일사범학교에 다닐 때부터 새벽에 냉수욕을 하였으며, 그 외에도 풍욕, 일광욕, 우욕(雨浴)까지 즐겼다고 한다[4].

특히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體育之研究」의 마지막부분은 자신이 직접 창안하고 아침과 저녁에 직접 실천하였던 6가지 맨손체조를 설명하고 있다.

## 2. 모택동 체육사상이 중국체육에 미친 영향

모택동의 체육사상은 사실 시기별로 조금씩 다르다. 청년기와 혁명가로서 활동시기 그리고 중화민국의 최고 지도자로 시기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體育之研究」 발표 이후인 모택동의 청년기 체육사상에 집중하고자 한다. 체육관련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의 생애를 보면 매우 일관되게 강력한 체력단련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혁명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개인의 체력을 중요시하기도 하였고, 본인 체력의 강건함을 ‘양자강 도하 수영’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과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은 모택동의 체육에 대한 생각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모택동은 청년시절부터 체력단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체육을 통해 자립하고 성장한 자신의 체험을 기반으로 체력단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인이 몸소 실천하여 깨달은 체육사상은 실천으로 연결되었다. 바로 국가와 개인의 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즉, 국가와 혁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개인과 국가의 체력을 매우 중요시한 것이다. 이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체육을 통해 자립하고 성장한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에서 우러난 부분이 많다.

## III. 「體育之研究」 발표시 시대적 배경

「體育之研究」를 읽어보면, 모택동은 반봉건 반식민지 상태의 중국에서 국권쇠퇴의 원인이 중국 인민의 체력저하와 몸을 움직이는 신체의 활동을 경시하는데서

유래하였음을 바로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긴 세월 중국의 崇文·崇儒 형태 교육의 잘못을 지적하고 體育·智育·德育의 조화를 강조하고, 그중에서도 體育가 가장 중요함을 반복하고 있다.

사실 1840년 아편전쟁이후 서구 열강의 중국 침탈의 야욕은 수많은 근대사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였다. 그 속에서 일어난 중국 근대의 체육교육과 활동의 변화는 중화민족의 중흥과 자립갱생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일련의 체육활동과 교육이 발전하면서 중국은 근대 학교 체육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 서구 열강의 기독교 전파를 위해 중국에 근대 체육교육을 시작한 교회학교의 영향으로 일찍 국제적인 시각도 갖추게 되었다. 중국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체육 선수 및 체육 지도자를 양성하게 되었고 국제 올림픽위원 등을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빨리 배출하게 되었다. 중국 청화대학에서 학교체육발전에 기여한 馬約翰, 1947년 국제 올림픽 위원이 된 董守義, 중화민국 체육회 부주석이었던 여성 張匯蘭 등이 그 대표적 인물들이다[8].

이러한 중국 근대 체육의 발전은 중국 사회문화의 근대화를 앞당기는 또 다른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근대의 한 중 일 삼국은 몸의 움직임이나 관련 교육과 근대화의 유입이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처럼 중국은 수많은 근대와 현대의 고난 속에서 신체활동과 군사력의 중요성을 체험 터득하였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정규교과로 기관에서 교육하지는 않았지만 중국고대로부터 내려오는 養生과 체력단련을 중요시하는 중국인 고유의 체육의식이 계승되어 왔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의 엘리트 체육 강국 사회체육 강국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근대의 고통 속에서 정착된 체육에 대한 인식 제고, 체육 교육 속에서 발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중국 근대의 체육발전과 변화의 과정은 본 연구자의 박사논문 「중국 근대 체육의 변화와 발전」(신의연, 2020. “중국 근대 체육의 변화와 발전”. 한일장신대학교 박사논문)에서 언급한 바,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근대의 체육을 단계로 나누어 보면 잉태기(1840년-1902년), 발아기(1903년-1910년), 성장기(1911-1919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3]

모택동(毛澤東)의 「體育之研究」는 중국 근대 체육의 성장기에 발표된 문장에 해당한다. 이는 또 다른 의미에서 1919년 신문화운동의 시작과 함께 중국의 현대

체육의 발전을 견인한 계기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근대 체육의 잉태기에는 외세에 의하여 부득불 중국 체육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수천 년 중국 문인지상의 전통이 깨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중국은 생존을 위한 강국과 강병(強兵)을 목적으로 근대식 학당을 설립하게 된다.

1901년 중국내 각 省의 서원을 학당(學堂)이라는 근대 학교식으로 바꾸었다. 1902년에는 ‘壬寅學制’인 <欽定學堂章程>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다음해 1903년 癸卯學制인 <奏定學堂長程> 발표한다. 주로 일본학제와 비슷하게 진행된다. 이들 ‘양무학당’들은 ‘西文(서양언어)’과 ‘西藝(서양기술)’를 가르쳤고, 이들 학당은 ‘體操課’라는 과목명으로 학교에서 체육교육을 시작하였다. 중국도 한국과 비슷하게 처음에는 ‘體操課’라는 과목명으로 근대적 체육교육을 시작하였다 [3].

중국의 근대 체육 발아기(1904년-1910년)에는 1905년 과거제도를 폐지하였다. 당시 이를 대신할 고등교육 기관이 없었기에 서구 기독교단체가 설립한 교회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여러 신학당이 문을 열었다[6].

미국 YMCA의 도움으로 1908년 중국 YMCA 기독교 청년회가 성립되었다. 교회학교와 함께 이 두 중심축이 중국의 근대 체육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은 서구 근대 스포츠 종목을 소개하고 다양한 체육교육활동을 지지하였으며, 학생들을 체육전문인들을 양성하였다. 물론 이들이 서구 제국주의 문화를 이식했다는 비난도 많았지만, 동시에 중국 근대 체육활동의 발전을 이끌었음도 사실이다[7].

중국 근대 체육 성장기(1911-1919년)에는 다양한 정치적 사건을 배경으로 중국 체육교육이 엄연한 교육기관의 과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수 천년 이어온 중국의 왕정이 무너지게 된다. 1912년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교육부를 설립되었다. 중국 근현대의 유명한 교육자이자 혁명가인 채원배(蔡元培)가 1대 교육부장이 되어 그는 1912년 壬子學制를 반포하며 청말 학교교육의 범령에 변화를 기했다. 기존의 ‘학당’이 ‘학교’라 이름이 바뀌게 된다. 게다가 채원배는 국권수호와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군국민교육이 학교교육의 10%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고등소학교(지금의 중학) 이상의 학교에서는 모두 병식체조를 실시하였다[3].

하지만 이때에 모택동 언급한 체육교육의 폐단이 일부 발생하게 된다. 당시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의 회고록을 보면 실제 체육시간에 제대로 된 의미의 체육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이 병식체조위주였고, 맨손체조와 기계 체조가 있었는데 이도 독일식, 일본식 운운하며 혼란을 거듭하게 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교육받은 체육교사가 없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근대식 군사 훈련을 실시하던 장교들이 체육교사로 근무하거나 교회학교의 선교사들이 이를 대체하였지만, 체육교사의 자질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다가 1919년에 중국 교육부는 훈령 195호에 “학교 體育은 반드시 심신 각 부분이 균형적 발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를 발표하며 제대로 된 체육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1923년 『中小學課程綱要草案』에서 ‘體操課’가 ‘體育課’로 변경된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노신(魯迅), 호적(胡適), 진독수(陳獨秀)등이 발간한 『新青年』 잡지와 이들이 강렬하게 주창하고 청년들이 움직인 신문화운동의 여파로 조금씩 체육 교육개혁이 이루어진 것이다[6]. 여기에 당시 모택동 같은 청년도 『新青年』 잡지에 「體育之研究」를 기고하며 향후 체육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 IV. 「體育之研究」속 주요내용과 의미

「體育之研究」은 1917년 4월 1일 『新青年』 제3권 제 2호에 게재되었다. 당시 투고자의 필명은 “二十八畫生”이었다. 이 “二十八畫生”은 모택동이란 한자의 총획수이다[2].

「體育之研究」의 시작은 “우리의 국력이 쇠퇴하여 武風이 불지 않는다, 국민의 체력이 날마나 쇠약해짐으로 이는 근심할 현상이다(國力茶弱, 武風不振, 民族之體質, 日趨輕細. 此甚可憂之現象也.)”로 적혀있다. 이 부분이 바로 그가 이 저술을 시작한 동기이며, 체육활동을 통한 백성의 체력증강이 필요하고 또 이는 체육운동에 대한 백성의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진 서론의 마무리에서 겸허히 다른 이들의 가르침을 구하고 있다.

「體育之研究」은 서론과 본론의 8가지 구체적 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다). 본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의 의미(釋體育), 2. 우리들에게서 체육의 위치(體育在吾人之位置), 3. 지금까지 체육의 폐해와 우리의 나아갈 길(前此體育之弊及吾人自處之道), 4. 체육의 효과(體育之效), 5. 운동을 싫어하는 원인(不好運動之原因), 6.운동의 방법은 적은 편이 좋다(運動之方法貴少), 7.운동할 때 주의할 점(運動應注意之項), 8. 내가 깨달아 얻은 운동을 제안하다(運動一得之商榷)이다.

국내에 이 「體育之研究」의 번역은 크게 두 역서에 나누어 소개되어 있다. 먼저는 다케우치미노루가 일본어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국내의 신현승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2005 출판된 『청년 모택동』(2005, 서울: 논형)이 있다. 그리고 신현승의 번역 책에서 생략된 부분은 중국의 국가체육위원회 주임이었던 오소조등이 편집한 모택동의 문장을 김수옥·전세일이 번역하여 책으로 엮은 『모택동 체육사상의 이해』(2009, 서울: 레인보우북스)가 있다. 본 논문은 이들의 기존 번역을 토대로 정확한 그 의미를 구현하고자 본 연구자의 직접 번역으로 아래와 같이 해석하며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서론 속 ‘체육활동의 자각’의 의미와 특징

원문에 입각한 「體育之研究」의 주요내용 중 청년 모택동만의 특이한 체육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는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體不堅實，則見兵而畏之，何有于命中，何有于致遠？堅實在于鍛煉。鍛煉在于自覺。今之提倡者，非不設種種之方法，然而無效者，外力不足以動其心，不知何爲體育之眞義。體育果有如何之價值，效果云何，著手何處，皆茫乎如在霧中，其無效亦宜。欲圖體育之效，非動其主觀，促其對體育之自覺不可。苟自覺矣，則體育之條目，可不言而自知，命中致遠之效，亦當不求而自至矣”[5]

(활을 쏠 때)몸이 튼튼하지 않으면, 병사를 보고 두려워하는데, 어찌 명중할 수 있으며, 어찌 멀리 갈 수 있겠는가? 튼튼함은 단련에 있는 것이다. 단련은 (그 무엇보다) 자각에 달려 있다. 오늘날 (체육) 제창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보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효과가 없었던 것은 외력이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고, (그들은) 체육의 진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체육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하는지 모두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망망했던 것이다. 그래서 효과가 없었던 것이 당연하다. 체육(활동)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주동

적인 생각으로 체육에 대한 자각이 촉진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진실로 (체육의 가치를) 자각하게 된다면, 체육의 구체적 항목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 수 있고, (활쏘기에 비유하자면) 명중하고 멀리도 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 힘써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처럼 서론에서 모택동은 이처럼 자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무리 외력으로 운동을 시키려하여도 이는 불가능한 것이며,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자나 배우는 자가 스스로 주관을 가지고 자각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만약 이 체육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진다면 운동의 종목이나 쓸모없는 노력보다 더욱 신속하게 그 원하는 바 실력향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자각’이 모택동만의 중요한 체육 사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2. 본론 제 2조항 ‘오늘날 체육의 위치’의 의미와 특징

이 제 2조항에서의 원문은 ‘體育在吾人之位置’로 ‘오늘날 체육의 위치’로 직역할 수 있지만 사실이것은 체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德育, 智育과 함께 언급하여 모택동의 ‘심신일원론적인 체육사상’을 이야기 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體育一道，配德育與智育，而德智皆寄于體。無體是無德智也。顧知之者或寡矣。或以爲重在智識，或曰道德也。夫知識則誠可貴矣，人之所以異于動物者此耳。顧徒知識之何載乎？道德亦誠可貴矣，所以立群道平人已者此耳。顧徒道德之何寓乎？體者，爲知識之載而爲道德之寓者也。其載知識也如車，其寓道德也如舍。體者，載知識之車而寓道德之舍也。”[5]

체육의 도리는 덕육과 지육과 함께 길러지는 것으로, 덕과 지가 모두 체에 기탁하는 것이다. 체(신체)가 없다면 덕과 지도 없다. (그러나) 이를 아는 사람은 적다. 혹은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도덕이 (중요하다) 말한다. 무릇 지식은 참으로 귀한 것이며,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제자들의 지식은 어디에 담겨있는가? 도덕도 진실로 귀한 것이기에 무리의 도를 세우고 평등하게 사람을 대해야 한다. 그러나 무리들의 도덕은 어디에 깃들여 있는가? 체육이라는 것은 지식을 싣는 (실체)이며, 도덕이 기탁하는 (집)과 같다.

본문에서 모택동은 “顧徒知識之何載乎？顧徒道德之何寓乎？(제자들의 지식은 어디에 담겨있는가? 무리들의 도덕은 어디에 깃들여 있는가?)”를 언급하며, 결국은 體者，載知識之車而寓道德之舍也 (체육이야 말로 지식

을 신는 실체이며, 도덕이 깃들어 있는 집과 같다) 말한다. 이는 智 德 體 셋 중에서 체육이 덕과 지를 담은 실체이기에 體가 없다면 德과 智도 소용이 없다는 체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智 德 體 중에서 '體'가 가장 중요하다고 과감하게 문장으로 피력하고 있고, 이어 다음 내용의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운동법을 소개하고 있기에 더 설득력을 담보하게 된다.

### 3. 본론 제 6조항 '운동의 방법은 적은 편이 좋다'의 의미와 특징

일반적으로 운동은 많이 하고 여러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1917년 20대의 모택동은 이미 여러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한 가지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體育之研究」본론의 여섯 번째 항목에는 “運動之方法貴少”의 내용이 있다. 이는 매우 특이하게도 운동의 방법은 적은 편이 좋다는 의미로 모택동의 대표적 사상인 實事求是의 체육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 「體育之研究」의 원문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愚自傷体弱，因欲研究衛生之術。顧古人言者亦不少矣。近今學校有体操，坊間有書冊，冥心務泛，終難得益。蓋此事不重言談，重在實行，苟能實行，得一道半法已足，曾文正行臨睡洗脚、食后千步之法，得益不少。有老者年八十猶康健，問之，曰：“吾惟不飽食耳。”今之体操，諸法樊陳，更仆盡之，宁止數十百种？巢林止于一枝，飲河止于滿腹。吾人惟此身耳，惟此官骸藏絡耳，雖百其法，不外欲使血脉流通。夫法之致其效者一，一法之效然，百法之效亦然，則余之九十九法可廢也。”[5]

(나는) 어리석고 몸이 약해서 위생(건강하게 하는 체육활동)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돌아보니 이에 대해 언급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요즘 학교에는 '체조가 있고, 동네에는 책자가 있으나, 마음속 깊이 연구하여도, 무언가를 얻기가 힘들다. 대개 이런 (체육활동)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행이 중요하다. 진실로 실행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만 얻어도 족하다. 정문정(曾文正, 여기서는 曾國藩을 말한다)은 잠자리에 들기 전 발을 씻고, 식후에 천보를 걷는 방법을 실행했는데, 적지 않은 이득을 얻었다. 어떤 노인이 여든 살에도 건강하니, 누군가 이를 묻자, "나는 배불리 먹지 않았을 뿐이요." 라고 답했다. 오늘 날의 체조는 여러 방법이 알려져 있다. 이를 엮으려 따르고자 하더라도 어찌 이 수 백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겠는

가? 등지도 나무 한가지에만 틀면 되고, 강물의 물도 배가 부를 때까지 마시면 그만이다. 나의 몸도 이것 하나이니, 이 몸 하나만 거두면 된다. 수 백가지 방법으로 혈맥을 잘 흐르게 하려 하지만, 무릇 그 효과의 목적은 하나이고, 한가지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백가지 방법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즉, 남은 99가지 방법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目不兩視而明，耳不兩听而聰，筋骨之鍛煉而百其方法，是扰之也。欲其有效，未見其能有效矣。夫應諸方之用，与鍛一己之身者，不同。(중략) 運動筋骸使血脉流通，此鍛一己之身者也。應諸方之用者其法宜多，鍛一己之身者其法宜少。”[5]

눈은 두 번 보지 않아도 잘 보이고, 귀는 두 번 듣지 않아도 잘 들리며, 근육의 단련에 백가지 방법을 쓴다면, 이는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다. 효과를 보려하나, 효과가 있을 수 없다. 무릇 여러 방면의 용도에 응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단련하는 것과는 다르다. (중략) 근력을 움직이며 운동하는 것은 그 혈맥을 통하게 하려는 것이며, 이것이 개인의 몸을 단련시키는 방법이다. 여러 방면에 필요한 운동을 만들어 대응하는 방법은 많아야 하되, 한 개인의 몸을 단련하는 운동은 그 방법이 적어야 한다.

“近之學者，多誤此意，故其失有二：一則好運動者，以多爲善，几欲一人之身，百般俱備，甚至无一益身者；一則不好運動者，見人之技藝多，吾所知者少，則絕弃之而不爲，其宜多者不必善，務廣而荒，又何貴乎？少者不必不善，雖一手一足之屈伸，苟以爲常，亦有益焉。明乎此，而后体育始有進步可言矣。”[5]

지금의 학생들은 이 뜻을 많이 오해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잃었다. 첫째, 운동 잘하는 것을 선으로 여겨, 한 사람의 몸이 여러 가지를 구비하기를 원하였기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몸에 이로운 것이 없게 되었다.

다른 한 가지는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다른 이들은 운동을 잘하는데 자신은 할 수 있는 게 적다고 여겨, 모두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처럼 운동방법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며, 불필요한 생각으로 황폐해지니 무슨 좋은 점이 있겠는가. 방법이 적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비록 한손과 한 발의 굴신운동만 하더라도 늘상 견지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이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한다면 앞으로의 체육이 진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시중에 쓸데없이 범람하고 있는 여러 체육활동에 대한 경계를 의미하고 있다. 한 가지라고 자신이 꾸준히 운동한다면 그 목표한 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모택동 자신이 마지막 8조항에서 말하고 있는 자신이 깨달아 얻은 여섯 부위의 손발의

굴신이라도 꾸준히 한다면 충분한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이다.

## V. 「體育之研究」속 청년 모택동 체육사상의 특징

청년 모택동은 「體育之研究」에서 체육은 덕육과 지육을 움직이는 실체이며 극복하고, 적극적인 체육활동이 개인의 자아실현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문장에서 그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체육교육의 목적이 구국에 있음을 밝히고 당시의 체육교육의 폐해를 일부 언급하며, 실질적인 체육교육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두 번째, 그는 심신일원론적인 체육사상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그의 체육사상에 따른 실천은 예외적으로 소박하고 실질적이었다. 대표적으로 「體育之研究」에서 그의 6가지 체력운동 실천방법을 제시함이 그러하다.

중화인민공화국수립이후 근 30년간 중국 최고 통치자로서 본인이 몸소 ‘장강 수영’ 등으로 체육활동의 적극적인 실천을 몸소 보이며, 중국 전역에 체육교육과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1960년대 이후 탁구 등을 시작으로 중국의 엘리트 체육이 급속히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 References

- [1] Kim Dong Kyu · Li Long Zhu, Mao Zedong's Thoughts of Physical Education inhered in "Ti-Yu-Zhi-Yan-Jiu",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 Vol.44 No.1 , pp11-19, 2005.
- [2] Fang, Lingling. *Mao Ze Dong Thought of Physical Education in his young age*, Kyunbook National University PhD dissertation, pp 14-26 2011.
- [3] Shin Eui Yun, *Research on Chinese Sports Concepts and Physical Education Development in Modern Times*, Hanil University PhD dissertation, pp73-75, pp103-106, 2020.
- [4] Lee Seong · Cheol Liu Yong uan Cressed Modernity and Change of Sport in China Society,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17, No.3. pp.29-40, 2008.
- [5] Minoru Takeuchi · shin hyun seng, *young man*

*Mao Zedong*, seoul nonhyeon, pp.265-269, 2005.

- [6] Ok Guang · Ha ueng yong, The Ideological of Modern Sports Culture in China, 1841-1911,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44, No.5 pp.32-42, 2005.
- [7] Kim Yeon Soo · Shin Eui Yun, Sports activities in China led by modern Chinese church universities, The Society of China Culture in Korea, Vol.44, pp.129-148, 2014.
- [8] Kim Dae Sung · Kim Youn Soo · Shin Eui Yun, A Study on Educational achievements and educational ideas of modern China ma yue-ha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7, No. 2, pp.129-137, 2021.